

국내 아버지 관련 연구 동향 -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를 중심으로 - *

김 경 은¹⁾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김 연 아²⁾

늘해랑어린이집

본 연구는 국내 아버지 연구들을 고찰하여 아버지 연구와 관련된 연구 주제의 흐름과 방법론적 특징의 경향을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1990년에서 2016년까지의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 중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와 관련된 논문 249편을 기초로 하여 아버지 관련 변인과 연구방법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 연구는 1900-1999년도에는 20편이, 2000-2009년에는 65편, 2010-2016년에는 164편이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아버지 연구의 관심주제는 아버지 변인과 자녀 발달(신체, 인지, 사회정서발달) 간의 관계(혹은 영향)를 살펴본 연구가 가장 많았다. 연구방법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 대상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연구설계에서는 횡단 연구와 양적 연구가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자료수집방법으로는 조사법 중 설문지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측정도구는 비표준화도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시대별로 살펴보면, 연구주제 및 연구방법적 측면에서 다양성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영아기와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 대상 연구에서 연구주제나 연구방법에서 두드러지는 요소가 조금씩 다를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영유아기 아버지 자녀를 둔 아버지 연구의 제한점과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아버지, 영유아기 자녀, 연구주제, 연구방법, 연구동향

* 본 연구는 2016년 한국인간발달학회 추계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논문을 확장시킨 것임.

1)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부교수

2) 교신저자 : 늘해랑어린이집, 교사 (E-mail: 114407@hanmail.net)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전통적으로 유교적 관점이 지배적이었던 한국 사회에서는 아버지의 역할과 어머니의 역할이 뚜렷이 구분되어 있었고, 자녀 양육은 주로 어머니의 역할로 인지되어 왔다(정옥분, 정순화, 2014). 하지만 최근의 사회문화적 변화는 가족구조의 변화 및 가족구성원 역할에서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의 변화, 여성의 사회 참여로 인한 맞벌이 부부의 증가, 이와 더불어 이혼율의 증가와 같은 다양한 사회적 변화들은 아버지로 하여금 가족 밖에서의 생산적 역할 외에도 가족 내에서의 정서적, 양육적 역할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최근의 아버지 역할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아버지는 경제적 부양자 일뿐 아니라 자녀와의 일상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하고 자녀와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기를 사회에서 기대한다(Lupton & Barclay, 1997; Raley, Bianchi, & Wang, 2012). 최근 들어 대중매체에서 아버지들의 자녀 양육 프로그램이 급증하고 있는 것 또한 아버지 역할에 대한 현실적 요구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함께 아버지 개인의 자녀 양육에 대한 가치 혹은 신념의 변화는 아버지들의 양육 참여에 상당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조형숙, 김지혜, 김태인, 2008;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14; Levant, 1992; Pleck, 1997). 한 자녀를 둔 가정이 많아짐에 따라 이전 세대에 비해 아버지들의 자녀 양육이나 교

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자녀와의 놀이나 돌봄 활동과 같은 상호작용을 통해 느끼는 정서적 친밀감은 자녀 양육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권혜진, 2010). 이처럼 사회문화적 변화로 인한 사회적 압력에서 비롯된 것이든, 아버지 개인의 자발적인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든 최근 들어 아버지됨, 아버지상, 아버지 역할, 아버지 역할 참여 등에서 변화가 일고 있는 것은 자명한 현상이다.

외국에서는 Lamb(1975)의 연구에서 아버지를 ‘아동발달의 숨은 공로자’로 제시한 이후(정옥분, 정순화, 2008) 아버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국외의 아버지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아버지의 의미와 아버지 역할(Lamb, 2013; Lamb & Tamis-LeMonda, 2004), 아버지가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Brown, Mangelsdorf, & Neff, 2012; Huerta et al., 2013; League & Ford, 1996; Marsiglio, Amato, Day, & Lamb, 2000)이나 아버지의 양육참여 관련 요인(Minton & Pasley, 1996; Raley et al., 2012)에 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 몇몇 연구에서는 아버지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나 효과를 다루고 있었다(Helfenbaum-Kun & Ortiz, 2007; Taskin & Erkan, 2009).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을 잘 인식할수록 아버지들은 자녀 양육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Palkovitz, 1984), 아버지 역할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인지할수록 영아기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itel & Parke, 1998). 또한 아버지가 자녀의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경우 영유아는 영유아기뿐 아니라 성장한 이후에도 인지적으로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고(Faga & Iglesias, 1999; Huerta et al., 2013), 정서적으로 안정되며 지속적으로 아버지와 안정된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rown et al., 2012). 이처럼 아버지의 양육에 대한 관심 및 적극적 참여는 영유아의 긍정적 결과를 예측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영유아기 아버지 대상 연구는 1980년대에 처음으로 1편이 이루어졌고 1990년대 17편, 2000년-2006년까지 47편인 것으로 나타났다(김정원, 김유정, 2007). 국내 아버지 연구는 2000년대 이후 들어 증가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외국에 비해 국내 아버지에 대한 학술 연구가 늦게 시작되었음을 반영한다. 국내 사회문화적 흐름과 관련하여 살펴볼 때 1988년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된 이후 지속적인 개정을 거쳐 2007년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김형배, 2010)되면서, 대중적으로 민주적 아버지상, 아버지 역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실질적으로 한국 사회 아버지 역할변화 또는 아버지 양육참여의 구조적(정책적) 지원이라 할 수 있는 2008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아버지들의 양육 참여의 기회를 확장시키기 위한 사회적 노력들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 일예로, 자녀의 성장기에 가족이 함께 지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여 ‘가족친화경영’에 동참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고, 아버지들의 근무시간을 보다 융통성 있게 조절하기 위한 노력들도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남성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여성정책연구소에서는 ‘아버지 지수(father index)’를 개발해야 한다(아시아경제, 2016)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듯 아버지 관련 문헌에 대한 연구주제와 연구방법에 대한 고찰(김정원, 김유정, 2007)이 처음 이루어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아버지의 양육참여(신용주, 2008; 이해경, 2007), 양육태도 및 양육행동(김영희, 김신정, 2008), 아버지됨(김영두, 이대균, 2011; 조윤경, 2012), 아버지 교육프로그램(권기남, 2012; 신용주, 2009) 등과 같은 다양한 주제의 연구들이 상당수 이루어져 오고 있다. 김정원과 김유정(2007)의 연구는 국내 아버지 관련 연구의 초기 동향에 대해 고찰한 것으로, 2007년 이후 증가하고 있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 연구들을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아버지 연구에 대해 내용적, 연구방법적 측면에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자녀의 발달시기에 따라 아버지의 역할이나 양육참여에 대한 요구도, 자녀 발달에 대한 영향 등에서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론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발달시기를 영아기와 유아기로 구분하여 영아기,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연구에서 내용적, 연구방법적 측면의 동향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1990년대 이후부터 가장 최근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아버지와 관련된 국내 학술 논문들 중 영유아기 논문들을 중심으로 고찰하여 아버지와 관련된 연구의 내용적 흐름과 방법론적 특징의 경향들을 살

펴보고자 한다. 덧붙여 영아기와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를 구분하여 주로 어떠한 연구가 이루어져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양적으로 급속히 팽창하고 있는 우리나라 아버지 관련 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과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1.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 연구의 동향은 어떠한가?
2. 시대별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 연구의 동향은 어떠한가?
3. 영유아기 자녀의 발달단계별 아버지 연구의 동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1990년대 이후 국내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 연구에 관한 문헌들을 고찰한 것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문헌고찰 자료수집 과정과 분석틀을 통해 연구방법 및 절차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자료수집

최근까지 이루어진 아버지 연구에 관한 국내 논문을 조사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인터넷 사이트, 한국학술정보원(KISS)의 인터넷사이트, Dbpia의 인터넷사이트로 학술지를 ‘아버지’라는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1990년대 이후에서 2016년까지

5,747편이었으나, 이를 등재 학술지 게재 논문과 ‘영아’, ‘유아’, ‘영유아’의 키워드로 제한하자 RISS는 104편, KISS는 280편이 나왔다. 이 중에서 세 사이트에서 공통으로 열람되는 연구, 학술대회 포스터 논문, 열람이 불가능한 논문이나 영유아기 아버지와 관련이 없는 연구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49편을 최종분석 자료로 선정하였다. 이들 논문들을 기초로 아버지 관련 연구의 내용적 흐름, 사용된 연구 방법적인 특징을 검토하였다.

2. 분석틀

본 연구는 1990년대 이후 아버지 연구를 관련 변인과 연구방법으로 크게 구분하여 그 경향성을 알아볼 것이다. 분석함에 있어 최근 논문들에 나타난 관련 변인들의 분석틀은 표 1과 같다.

표 1. 분석틀

관련변인	내용
연구방법	연구대상 (자녀발달단계)
	연구유형
	시간설계
	측정도구
	자료수집방법

- 1) 관련변인: (1) 아버지 변인과 자녀 발달 관련내용(자녀의 신체, 인지, 정서발달) (2) 아버지 변인과 아버지 양육태도, 양육참여, 양육 효능감 (3) 아버지 변인과 아버지됨(아버지 역

할) (4) 아버지 교육프로그램 (5) 아버지 변인과 유아교육기관(보육기관) 관련 내용 (6) 기타 (부부관계, 결혼만족도, 사회적 지지 등)

3. 연구방법

- 1) 대상자녀 발달단계: (1) 영아(0-2세) (2) 유아(3-5세) (3) 영유아(0-5세)
- 2) 연구유형: (1) 양적연구 (2) 질적연구
- 3) 시간설계: (1) 횡단 (2) 종단
- 4) 자료수집: (1) 조사법-질문지법 (2) 면접법 (3) 관찰법 (4) 실험법 (5) 검사법 (6) 기타
- 5) 측정도구: (1) 외국 제작 도구를 번안한 척도(논문에서 타당도와 관련된 정보가 제시되지 않음) (2) 타인 혹은 연구자가 개발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입증한 척도 (3) 타인이 제작한 척도를 연구자가 일부 수정한 척도(수정된 척도에 대한 타당도 제시되지 않음) (4) 기타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 연구의 동향, 시대별 아버지 연구의 동향, 영유아기 자녀의 발달단계별 아버지 연구의 동향을 내용적, 연구방법적 측면에서 살펴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1990년대 이후 최근까지 아버지 연구의 경향

1990년대 이후부터 최근까지 이루어진 아버지 연구의 경향을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아버지 연구주제로는 아버지 변인과 자녀 발달(신체, 인지, 사회정서발달) 간의 관계(혹은 영향)을 살펴본 연구가 108편(43.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아버지 양육태도, 양육참여도, 양육효능감에 관한 연구(62편, 24.9%), 아버지됨과 아버지역할에 관한 연구(28편, 11.2%), 기타(28편, 11.2%), 아버지교육 프로그램 관련 연구(13편, 5.2%), 아버지 변인과 유아교육(보육)기관 관련 연구(10편, 4.0%)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방법과 관련하여, 아버지 연구 중 유아기 자녀만을 둔 아버지 연구가 대다수 173편(69.5%)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영아기 자녀만을 둔 아버지 연구는 31편(12.4%)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기를 모두 포함한 연구는 45편(18.1%)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유형과 관련하여 양적연구가 227편(91.2%)을 차지하였고 질적연구는 22편(8.8%)이었다. 아버지연구 중 횡단연구는 218편(87.6%)이고, 종단연구는 31편(12.4%)이었다. 아버지 연구의 측정도구와 관련하여, 164편(65.6%) 정도가 타인이 제작한 도구를 일부 수정해서 사용하였고, 48편(19.3%)정도가 외국의 문헌을 번역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1편(8.4%)만이 타당도와 신뢰도가 보고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아버지 연구의 자료수집방법과 관련하여, 198편(79.5%) 정도가 조사법(설문지법)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관찰법, 면접법, 검사법 등이 소수 사용되었다.

표 2. 1990년-2016년까지 아버지 연구동향

(N = 249)

변인	내용	빈도(%)
관련변인	1) 아버지 변인과 자녀 발달 관련내용(신체, 인지, 사회정서발달)	108(43.4%)
	1-1) 아버지 변인과 자녀 신체발달	4(3.7%)
	1-2) 아버지 변인과 자녀 인지발달	18(16.7%)
	1-3) 아버지 변인과 자녀 사회정서발달	84(77.8%)
	1-4) 아버지 변인과 자녀 통합발달(신체, 인지, 정서)	2(1.9%)
	2) 아버지 변인과 아버지 양육태도, 양육참여, 양육효능감	62(24.9%)
	3) 아버지 변인과 아버지됨(아버지 역할)	28(11.2%)
	4) 아버지 교육프로그램	13(5.2%)
	5) 아버지 변인과 유아교육기관(보육기관) 관련 내용	10(4.0%)
	6) 기타	28(11.2%)
연구 대상 연구 유형 시간 설계 연구 방법 자료 수집	(1) 영아(0-2세)	31(12.4%)
	(2) 유아(3-5세)	173(69.5%)
	(3) 영유아(0-5세)	45(18.1%)
	(1) 양적연구	227(91.2%)
	(2) 질적연구	22(8.8%)
	(1) 횡단	218(87.6%)
	(2) 종단	31(12.4%)
	(1) 외국 제작 도구를 번안하여 사용	48(19.3%)
	(2) 타인 혹은 연구자가 개발하여 타당도가 입증된 도구 사용	21(8.4%)
	(3) 타인이 제작한 도구를 일부 수정해서 사용	164(65.9%)
	(4) 기타	16(6.4%)
	(1) 조사법-질문지법	198(79.5%)
	(2) 면접법	10(4.0%)
	(3) 관찰법	18(7.2%)
	(4) 실험법	8(3.2%)
	(5) 검사법	8(3.2%)
	(6) 기타	7(2.8%)

2. 시대별 아버지 연구의 경향

시대별 아버지 연구의 내용

시대별 아버지 연구의 내용과 관련하여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1990-1999년도에는 20편이, 2000-2009년에는 65편, 2010-2016년에는 164편으로 2000년도 이후 아버지 연구가 급증하였다. 1990-1999년대에는 아버지 변인과 자녀 발달(신체, 인지, 사회정서발달)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가장 많았고(9편, 45.0%), 그 다음으로는 아버지 변인과 아버지 양육태도(양육참여도, 양육효능감)에 관한 연구(4편, 20.0%), 아버지교육 프로그램 관련 연구(3편, 15.0%)와 아버지 변인과 아버지됨에 관한 연구(3편, 1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버지 변인과 자녀의 발달 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에서는 9편의 연구 모두 아버지 변인과 자녀의 사회정서발달 간의 관계를 다루고 있었다.

2000-2009년대에는 아버지 변인과 자녀 발달(신체, 인지, 사회정서발달)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가장 많았고(29편, 44.6%), 그 다음으로는 아버지 변인과 아버지 양육태도(양육참여도, 양육효능감)에 관한 연구(17편, 26.2%), 아버지 변인과 아버지됨 및 아버지 역할에 관한 연구(9편, 13.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변인과 자녀의 발달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녀의 신체발달이나 인지발달과 관련된 연구가 늘어나기는 했으나 여전히 사회정서발달 간의 관계를 다루는 연구가 다수였다.

2010년 이후에는 전체적인 편수가 늘어남에 따라 내용적 측면에서도 다양한 연구주체의 아버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2010-2016년대에도 아버지 변인과 자녀 발달(신체, 인지, 사회정서발달)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가장 많았고(70편, 42.7%), 그 다음으로는 아버지 변인과 아버지 양육태도(양육참여도, 양육효능감)

표 3. 시대별 아버지 연구의 관련변인

(N = 249)

내용	1990-1999년	2000-2009년	2010-2016년
1) 아버지 변인과 자녀 발달 관련내용	9(45.0%)	29(44.6%)	70(42.7%)
1-1) 아버지 변인과 자녀 신체발달	-	2(6.9%)	4(3.7%)
1-2) 아버지 변인과 자녀 인지발달	-	7(24.1%)	18(16.7%)
1-3) 아버지 변인과 자녀 사회정서발달	9(100%)	20(74.1%)	84(77.8%)
1-4) 아버지 변인과 자녀 통합발달(신체, 인지, 정서)	-	-	2(1.9%)
2) 아버지 변인과 아버지 양육태도, 참여, 효능감	4(20.0%)	17(26.2%)	41(25.0%)
3) 아버지 변인과 아버지됨(아버지 역할)	3(15.0%)	9(13.8%)	16(9.8%)
4)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	3(15.0%)	1(1.5%)	9(5.5%)
5) 아버지 변인과 유아교육기관(보육기관)	1(5.0%)	3(4.6%)	6(3.7%)
6) 기타		6(9.2%)	22(13.4%)
전체	20(100%)	65(100%)	164(100%)

에 관한 연구(41편, 25.0%), 기타(22편, 13.4%), 아버지 변인과 아버지됨(아버지 역할)(16편, 9.8%),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9편, 5.5%), 아버지 변인과 유아교육기관(6편, 3.7%) 연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변인과 자녀의 발달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서발달 간의 관계를 다루는 연구가 다수였고, 그 다음으로는 인지발달, 신체발달, 통합발달 순으로 나타났다.

시대별 아버지 연구의 연구방법

시대별 아버지 연구의 연구방법과 관련하여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1990-1999년까지 연구의 연구방법과 관련하여, 아버지 연구 중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 연구가 대다수(16편, 84.2%)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영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 연구는 1편으로 5.0%였다. 또한 연구유형과 관련하여 양적연구가 100%를 차지하였다. 아버지 연구 중 횡단연구는 17편(85%)이고, 종단연구는 3편(15%)이었다. 아버지 연구의 측정도구와 관련하여, 11편 정도(55%)가 타인이 제작한 도구를 일부 수정해서 사용하였고 외국의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5편(25%)인 반면, 타당도와 신뢰도가 보고

표 4. 시대별 아버지 연구의 연구방법

(N = 249)

내용		1990-1999년	2000-2009년	2010-2016년
연구대상	(1) 영아(0-2세)	1(5.0%)	1(1.5%)	29(17.7%)
	(2) 유아(3-5세)	17(85.0%)	53(81.5%)	103(62.8%)
	(3) 영유아(0-5세)	2(10.0%)	11(16.9%)	32(19.5%)
연구유형	(1) 양적연구	20(100%)	62(95.4%)	145(88.4%)
	(2) 질적연구		3(4.6%)	19(11.6%)
시간설계	(1) 횡단	17(85.0%)	59(90.8%)	142(86.6%)
	(2) 종단	3(15.0%)	6(9.2%)	22(13.4%)
측정도구	(1) 외국 도구를 번안	5(25.0%)	17(26.2%)	26(15.9%)
	(2) 타당도, 신뢰도 입증된 도구	3(15.0%)	6(9.2%)	12(7.3%)
	(3) 타인 제작 도구를 수정 사용	11(55.0%)	40(61.5%)	113(68.9%)
	(4) 기타	1(5.0%)	2(3.1%)	13(7.9%)
자료수집	(1) 조사법-질문지법	15(75.0%)	56(86.2%)	127(77.4%)
	(2) 면접법	1(5.0%)	3(4.6%)	6(3.7%)
	(3) 관찰법	2(10.0%)	5(7.7%)	11(6.7%)
	(4) 실험법	1(5.0%)		7(4.3%)
	(5) 검사법	1(5.0%)	1(1.5%)	6(3.7%)
	(6) 기타			7(4.3%)

된 척도를 사용한 것은 3편(15.0%)이었다. 아버지 연구의 자료수집방법과 관련하여, 15편 정도(75%)가 조사법(설문지법)으로 나타났고, 관찰법, 면접법, 실험법, 검사법 등이 1편씩 이루어졌다.

2000-2009년까지 연구의 연구방법과 관련하여, 아버지 연구 중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 연구가 대다수 81.5%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영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 연구는 1편으로 1.5%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유형과 관련하여 양적연구가 62편(95.4%)을 차지하였지만, 처음으로 질적연구가 3편 실시되었다. 아버지연구 중 대다수(59편 90.8%)가 횡단연구였으나, 이전에 비해 종단연구의 수(6편, 7.2%)가 증가하였다. 아버지 연구의 측정도구와 관련하여, 40편 정도(61.5%)가 타인이 제작한 도구를 일부 수정해서 사용하였고 외국의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17편(26.2%)인 반면, 타당도와 신뢰도가 보고된 척도를 사용한 것은 6편(9.2%)이었다. 아버지 연구의 자료수집방법과 관련하여, 56편 정도(86.2%)가 조사법(설문지법)을 활용하였으며, 관찰법과 면접법을 활용한 연구가 소수 이루어졌다.

2010-2016년까지 연구의 연구방법과 관련하여, 아버지 연구 중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 연구가 103편(62.8%)으로 가장 많고, 영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 연구는 29편(17.7%)으로 이전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영유아를 모두 포함하는 연구(32편, 19.5%)도 증가하였다. 또한 연구유형과 관련하여 양적연구가 145편(86.4%), 질적연구는 19편(11.6%)으로 질적연구의 편수가 상당히 증가하였다. 아버지 연구 중 횡단연구는 142편(86.6%)이고, 종단연구는 22편

(13.4%)으로 종단연구의 편수도 증가하였다. 아버지 연구의 측정도구와 관련하여, 113편 정도(68.9%)가 타인이 제작한 도구를 일부 수정해서 사용하였고 외국의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26편(15.9%)인 반면, 타당도와 신뢰도가 보고된 척도를 사용한 것은 12편(7.3%)이었다. 아버지 연구의 자료수집방법과 관련하여, 127편 정도(77.4%)가 조사법(설문지법)으로 나타났고 이전에 비해 소수이기는 하지만 실험법, 관찰법, 검사법, 문헌연구법 등 다양한 자료수집방법이 적용되었다.

자녀의 발달단계별 아버지 연구의 관련 변인

자녀의 발달단계별 아버지 연구의 내용과 관련하여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영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 대상연구는 주로 아버지 변인과 자녀의 발달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 15편(48.4%)과 아버지 변인과 아버지 양육태도, 양육참여, 양육효능감과 관련된 연구 10편(32.3%)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아버지 변인과 영아기 자녀의 발달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대다수가 아버지 변인과 자녀의 사회정서발달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다.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아버지 변인과 자녀의 발달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 88편(51.5%)과 아버지 변인과 아버지 양육태도, 양육참여, 양육효능감과 관련된 연구(36편, 20.8%)가 다수를 차지하기는 하였으나, 아버지 변인과 아버지 지됨(15편, 8.7%)과 아버지교육프로그램(8편, 4.6%), 자녀 유아교육기관과 관련된 연구(8편, 4.6%)들도 소수 진행되었다. 아버지 변인과 유

표 5. 자녀발달단계별 아버지 연구의 관련변인

(N = 249)

내용	영아	유아	영유아
1) 아버지 변인과 자녀 발달 관련내용	15(48.4%)	88(51.5%)	5(11.1%)
1-1) 아버지 변인과 자녀 신체발달	1(6.7%)	2(2.3%)	1(20.0%)
1-2) 아버지 변인과 자녀 인지발달	1(6.7%)	16(18.2%)	1(20.0%)
1-3) 아버지 변인과 자녀 사회정서발달	13(86.7%)	70(79.5%)	3(60.0%)
1-4) 아버지 변인과 자녀 통합발달(신체, 인지, 정서)	-	2(2.3%)	-
2) 아버지 변인과 아버지 양육태도, 참여, 효능감	10(32.3%)	36(20.8%)	18(35.6%)
3) 아버지 변인과 아버지됨(아버지 역할)	1(3.2%)	15(8.7%)	12(26.7%)
4) 아버지 교육프로그램		8(4.6%)	5(11.1%)
5) 아버지 변인과 유아교육기관(보육기관)		8(4.6%)	2(4.4%)
6) 기타	5(16.1%)	18(10.4%)	5(11.1%)

아기 자녀의 발달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도 대다수가 아버지 변인과 자녀의 사회정서발달 간의 관계를 다루고 있었다. 영아기와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 모두를 포함한 연구의 주제는 보다 다양했는데, 아버지 변인과 아버지 양육태도, 양육참여도와 양육효능감과 관련된 연구(18편, 35.6%)들이 가장 많았고, 아버지 변인과 아버지됨이나 아버지 역할과 관련된 연구(12편, 26.7%)들도 다수 이루어졌다.

자녀발달단계별 아버지 연구의 연구방법

자녀의 발달단계별 아버지 연구의 내용과 관련하여 살펴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아버지 연구 중 영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 연구는 양적연구가 거의 대다수이고, 질적연구는 1편에 그쳤다. 주로 횡단연구가 이루어졌으며(27편, 87.1%), 종단연구는 4편(10.9%)이 이루어졌다. 측정도구의 경우 타인이 제작한 도구를 일부 수정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20편, 64.5%) 그

다음으로는 외국의 척도를 번안해서 사용하였다(10편, 32.3%). 신뢰도와 타당도가 모두 입증된 척도를 사용한 연구는 1편 밖에 없었다. 자료수집은 조사법이 가장 많았고(27편, 87.1%), 관찰법이 3편(9.7%)이었다.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 연구는 양적연구가 대다수이고(161편, 93.1%), 질적연구도 소수 이루어졌다(12편, 6.9%). 주로 횡단연구가 이루어졌으며(159편, 91.9%), 종단연구도 14편 이루어졌다. 측정도구의 경우 타인이 제작한 도구를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거나 외국의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는 연구가 과반수 이상이지만, 타당도와 신뢰도가 입증된 척도를 사용하는 연구도 18편(10.4%)이었다. 자료수집은 조사법(138편, 79.8%)이 가장 많았지만 면접법, 관찰법, 실험법 등 영아기 연구에 비해 다양한 자료수집방법이 적용되었다.

영아기와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 모두 포함한 연구도 양적연구가 대다수(36편, 80.0%)이

표 6. 자녀발달단계별 아버지 연구의 연구방법

(N = 249)

	내용	영아	유아	영유아
연구유형	(1) 양적연구	30(96.8%)	161(93.1%)	36(80.0%)
	(2) 질적연구	1(3.2%)	12(6.9%)	9(20.0%)
시간설계	(1) 횡단	27(87.1%)	159(91.9%)	32(71.1%)
	(2) 종단	4(12.9%)	14(8.1%)	13(28.9%)
측정도구	(1) 외국 도구 번안	10(32.3%)	34(19.7%)	4(8.9%)
	(2) 타당도, 신뢰도 입증된 도구	1(3.2%)	18(10.4%)	2(4.4%)
	(3) 타인 제작 도구 수정사용	20(64.5%)	112(64.7%)	32(71.1%)
	(4) 기타		9(5.2%)	7(15.6%)
자료수집	(1) 조사법-질문지법	27(87.1%)	138(79.8%)	33(73.3%)
	(2) 면접법		5(2.9%)	5(11.1%)
	(3) 관찰법	3(9.7%)	13(7.5%)	2(4.4%)
	(4) 실험법	1(3.2%)	7(4.0%)	
	(5) 검사법		6(3.5%)	2(4.4%)
	(6) 기타		4(2.3%)	3(6.6%)

고, 질적연구도 소수 이루어졌다(9편, 20.0%). 주로 횡단연구가 이루어졌으나(32편, 71.1%), 종단연구도 13편(28.9%) 이루어졌다. 측정도구의 경우 타인이 제작한 도구를 일부 수정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32편, 71.1%). 자료수집은 조사법이 가장 많았고(33편, 73.3%), 면접법도 소수 적용되었다(5편, 11.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199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국내 아버지 논문들을 관련 변인과 연구방법적 측면에서 살펴본 후, 시대에 따라 어떠한 경향을 보이는지, 연구 대상에 따라 어떠한 주

제로 연구가 이루어져왔는지 살펴보았다. 이상의 결과가 시사하는 바를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90년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진 아버지 논문의 연구주제를 살펴보면, 아버지 변인과 자녀 발달(신체, 인지, 사회정서발달) 간의 관계(혹은 영향)와 아버지 양육태도, 양육참여도, 양육효능감에 관한 연구, 아버지됨과 아버지 역할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이나 유아교육(보육)기관에 대한 연구들은 소수 이루어졌다. 영유아기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을 역설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특성들이 자녀의 발달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하는 연구(권정운, 정미라, 이방실, 2015; 이수재, 이영환, 2010;

Sarkadi, Kristiansson, Oberklaid, & Bremberg, 2008)들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적극적인 아버지 역할, 양육 및 교육 참여가 자녀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할지라도, 자녀와 긍정적 유대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거나 심지어는 어떻게 관계를 형성해야 할지 모르는 아버지들에게는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강화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놀이 방법이나 교육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보다 근원적으로 아버지됨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거나 아버지 자신의 개인적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으면 자녀 양육에 몰입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 자신의 자아존중감이나 효능감을 높여주기 위한 교육적 혹은 상담적 접근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최근 들어 영유아들의 보육기관 이용률이 급증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을 고려해볼 때, 영유아의 발달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부모, 영유아, 영유아교육기관 간의 유기적이고 밀접한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여러 연구에서 부모의 영유아교육기관에 대한 참여율이 높을수록 이후에 긍정적인 성취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Arnold, Zeljo, Doctoroff, & Ortiz, 2008; Izzo, Weissberg, Kasprow, & Fendrich, 1999; Reynolds, Ou, & Topitzes, 2004). 따라서 아버지들의 영유아교육기관(어린이집, 유치원) 참여의 긍정적 효과 등과 같은 연구(배지희, 김신영, 이수영, 2016; 정말숙, 이희영, 2014)뿐 아니라 아버지들의 영유아교육기관 참여가 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직간접적 경로를 밝히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외체계적인 측면에서 아버지 회사의 특성(근로시간, 친가족경영 등)이 자녀의 교육기관 참여나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들을 통합적으로 살펴보는 연구들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연구방법과 관련하여, 아버지 연구 중 연구대상적 측면에서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 연구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영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소수로 나타났다. 아버지됨과 아버지의 역할수행은 출산 전부터 시작해서 출산이후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보다 강화된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영아 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한 아버지 역할 및 참여의 중요성(김지원, 김낙홍, 2011; 정미라, 박수경, 이방실, 2013), 아버지 상호작용 혹은 놀이법(김태인, 2016) 등과 같은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변화하는 시대에 적합한 아버지상, 아버지 역할정체성 등과 같은 연구(Cabrera, Tamis-LeMonda, Bradley, Hofferth, & Lamb, 2000)를 통해 현대사회 아버지들의 바람직한 역할을 안내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고, 어머니와는 다른 특징을 가진 아버지 역할, 아버지-자녀관계, 자녀 양육태도 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연구유형과 관련하여 양적연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질적연구는 소수 이루어졌다. 질적연구와 양적연구가 갖는 각각의 장단점을 고려해 볼 때, 변화하는 시대의 아버지들의 어려움, 아버지됨의 준비(George & Kirk, 2002), 첫아이의 아빠들이 경험하는 정신적 변화(Darwin et al., 2017) 등 여러 사례를 통해 구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특성들을 발견해낼 수 있는 질적 연구도 좀 더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설계 측면에서, 대다수의 연구가 횡단 연구이고 종단연구는 소수였다. 국외에서는 아버지 특성과 자녀 발달 간의 종단적 영향력을 살펴보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Arnold et al., 2008; Izzo et al., 1999; Reynolds et al., 2004), 국내의 경우 최근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우울과 양육스트레스 사이의 관계를 종단적으로 알아보는 연구(양진희, 2016)가 시행되기는 하였으나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버지들을 추적 조사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부모가 되기 전부터 부모가 된 이후 아버지들이 어떠한 정서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지, 자아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아버지 개인 및 관계의 발달적 측면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다. 이와 더불어 자녀의 출산을 기점으로 어머니됨과 아버지됨에 있어 경험하는 개인적 혹은 관계적 정서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도 흥미로운 것으로 추론된다. 추후 연구에서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의 발달적 변화를 추적하는 보다 체계적인 연구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아버지 연구의 측정도구 양호도와 관련하여, 거의 모든 연구에서 신뢰도는 제시하고 있으나 타당도에 대한 자료를 누락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대다수의 연구에서 타인이 제작한 도구를 일부 수정(예를 들면, 문항수를 줄이거나 문항을 변형)한 후 수정된 척도에 대한 타당도를 제시하지 않거나, 외국 척도를 번안해서 사용한 척도의 경우 타당도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타당도는 측정하고

자 하는 것을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가와 관련된 것으로서, 측정도구 부분에서 척도의 타당도와 관련된 근거를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특히 본 연구결과 아버지 연구의 대다수가 조사법(설문지법)인 점을 고려해볼 때, 아버지 연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아버지의 특성들을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더불어 아버지의 특성들을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는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아버지 논문을 살펴보면, 2000년 이후로 아버지 논문이 급증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현대사회에서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의 증가 등을 보여주는 실질적 자료라 볼 수 있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시기에 상관없이 아버지 변인과 자녀의 발달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2000년 이후부터는 이전에 비해 아버지 교육프로그램(권기남, 2012), 아버지상(조형숙, 김지혜, 2008) 등 다양한 내용의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방법적 측면에서도 2000년 이후 영아 대상 연구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질적연구나 종단연구도 2000년 이전에 비해 증가하고 있으며, 측정도구 개발연구(정계숙, 강정아, 류수민, 2016; 최혜순, 이미현, 2015)들이 활성화됨에 따라 신뢰도나 타당도가 입증된 측정도구를 사용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아버지에 대한 대중적, 학술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아버지 연구가 활성화되면서 이전에는 다루어지지 않았던 다양한 주제의 연구들이 이루어

지고 있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타당하고 신뢰로운 도구들이 개발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또한 통계분석 기법 등이 기술적으로 진전됨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통계를 활용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분석이 가능해지고 있는데, 이 또한 아버지 연구의 장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추론된다.

셋째, 자녀의 발달단계별 아버지 논문을 살펴보면, 영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연구의 주제는 주로 아버지 변인과 자녀의 발달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나 아버지 양육태도, 양육참여, 양육효능감과 관련된 연구에 한정되었다. 영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 연구들이 아직 양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고, 영아기 아버지 역할이나 아버지 상을 측정할 수 있는 타당하고 신뢰로운 척도가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다. 실질적으로는 아버지의 아버지됨 혹은 아버지의 의미, 아버지 역할과 관련된 부분은 영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에게 필수적인 부분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가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영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 연구가 2000년 이후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영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들이 앞으로도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본 연구는 아버지 연구가 급증하고 있는 시점에서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 연구들을 내용적, 연구방법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하였으나, 양적 분석이 이루어지다보니 각 연구결과가 갖는 개별적 시사점들을 제시하지 못한 단점이 있다. 또한 아버지 연구의 표집에 있어서도 대표적인 3가지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

된 등재 학술 논문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누락된 연구들도 소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아버지의 특성(연령, 사회경제적 지위, 직업 등)에 따라서도 연구내용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측되나 이러한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기 어려워 분석하지 못했다는 단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 문헌고찰을 통해 추후 아버지 연구에서 고려되어야 할 점과 추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권기남 (2012). 유아기 자녀를 둔 저소득층 가정 아버지의 자녀양육 역할능력 향상을 위한 e-Learning 기반 아버지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연구. *아동교육*, 21(1), 5-20.
- 권정운, 정미라, 이방실 (2015). 아버지의 놀이 상호작용이 유아의 인지, 동작, 언어 발달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35(1), 333-350.
- 권혜진 (2010). 영유아기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아버지 역할만족도와 역할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자녀와의 친밀감의 매개효과 탐색. *한국보육학회지*, 10(4), 87-106.
- 김영두, 이대균 (2011). 초보 아버지들의 양육 특성과 아버지 됨의 변화과정. *어린이문학 교육연구*, 12(1), 353-380.
- 김영희, 김신정 (2008). 한국형 부모양육태도 검사를 이용한 학령전기 아동 아버지의 양육태도. *아동간호학회지*, 14(1), 79-89.

- 김정원, 김유정 (2007). 영유아기 자녀를 둔 우리나라 아버지 관련 연구 경향 분석: 1980년 이후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5(5), 25-38.
- 김지원, 김낙홍 (2011). 영아기 자녀 아버지의 역할인식과 역할수행에 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6(6), 189-210.
- 김태인 (2016). 만 1세 영아와 어머니, 아버지와의 그림책 읽기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 양상. *유아교육학논집*, 20(2), 449-470.
- 김형배 (2010). *노동법*. 서울: 박영사.
- 배지희, 김신영, 이수영 (2016). 유아교육기관에 서의 아버지 참여에 대한 아버지들의 경험과 기대. *유아교육연구*, 36(2), 271-294.
- 신용주 (2008). 아버지의 자녀양육 역할참여에 관한 문헌 고찰. *생활과학연구*, 13, 45-55.
- 신용주 (2009). 반응적 아버지교육 프로그램의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Andragogy Today: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12(3), 47-72.
- 아시아경제 (2016. 6. 10). 남성육아 확대 위해 '아버지 지수' 만들어야. *아시아경제*. <http://news.zum.com/articles/31153778>에서 2016년 11월 7일 인출
- 양진희 (2016).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우울과 양육스트레스 사이의 관계에 대한 단기종단연구.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7(2), 439-458.
- 이수재, 이영환 (2010). 아버지-유아 상호작용 유형 및 아버지 통제전략이 유아의 자기 통제 능력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7(4), 99-118.
- 이혜경 (2007).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역할 지각과 양육 참여 행동에 관한 연구: 이천시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계숙, 강정아, 류수민 (2016). 유아기 자녀의 아버지를 위한 「부모 참 역량」 척도의 타당화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21(2), 361-390.
- 정말숙, 이희영 (2014). 유아의 공격성과 유아 교육기관 적응 간의 관계에서 부모의 거부적 양육 태도 및 교사-유아 갈등관계의 매개효과. *아동교육*, 23(4), 377-390.
- 정미라, 박수경, 이방실 (2013). 영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관련 변인 탐색. *유아교육학논집*, 17(2), 449-469.
- 정옥분, 정순화 (2008). *부모교육*. 서울: 학지사.
- 정옥분, 정순화 (2014). *결혼과 가족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조운경 (2012). 발달지체 영아의 조기개입 서비스 시행 현황 및 지원 요구: 서비스 제공자 관점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 6(1), 39-66.
- 조형숙, 김지혜, 김태인 (2008).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가 추구하는 아버지상에 대한 연구. *유아교육학논집*, 12(1), 239-264.
- 최혜순, 이미현 (2015).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 양육참여척도 개발. *열린유아교육연구*, 20(5), 297-321.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14). *영유아기 자녀가 있는 아버지를 위한 양육 가이드 북*. 서울: (재)한국건강가정진흥원.
- Arnold, D. H., Zeljo, A., Doctoroff, G. L., & Ortiz, C. (2008). Parent involvement in

- preschool: Predictors and the relation of involvement to preliterate development. *School Psychology Review*, 37(1), 74-90.
- Beitel, A., & Parke, R. (1998). Paternal involvement in infancy: The role of maternal and paternal attitud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2(2), 268-288.
- Brown, G. L., Mangelsdorf, S. C., & Neff, C. (2012). Father involvement, paternal sensitivity, and father-child attachment security in the first three year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6(3), 421-430.
- Cabrera, N., Tamis-LeMonda, C. S., Bradley, R. H., Hofferth, S., & Lamb, M. E. (2000). Fatherhood in the twenty first century. *Child Development*, 71(1), 127-136.
- Darwin, Z., Galdas, P., Hinchliff, S., Littlewood, E., McMillan, D., McGowan, L., & Gilbody, S. (2017). Fathers' views and experiences of their own mental health during pregnancy and the first postnatal year: A qualitative interview study of men participating in the UK Born and Bred in Yorkshire (BaBY) cohort. *BMC pregnancy and childbirth*, 17(1), 45. DOI: 10.1186/s12884-017-1229-4
- Fagan, J., & Iglesias, A. (1999). Father involvement program effects on fathers, father figures, and their head start children: A quasi-experimental study.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4(2), 243-269.
- Gage, J. D., & Kirk, R. (2002). First-time fathers: Perceptions of preparedness for fatherhood. *The Canadian Journal of Nursing Research*, 34(4), 15-24.
- Helfenbaum-Kun, E. D., & Ortiz, C. (2007). Parent-training groups for fathers of head start children: A pilot study of their feasibility and impact on child behavior and intra-familial relationships. *Child & family Behavior Therapy*, 29(2), 47-64.
- Huerta, M. C., Adema, W., Baxter, J., Han, W.-J., Lausten, M., Lee, R., & Waldfogel, J. (2013). *Fathers' leave, fathers' involvement and child development: Are they related? Evidence from four OECD countrie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140, OECD Publishing, Paris. DOI: <http://dx.doi.org/10.1787/5k4dlw9w6czq-en>
- Izzo, C. V., Weissberg, R. P., Kaspro, W. J., & Fendrich, M. (1999). A longitudinal assessment of teacher perceptions of parent involvement in children's education and school performance.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7(6), 817-839.
- Lamb, M. E. (1975). Fathers: Forgotten contributors to child development. *Human Development*, 18(4), 245-266.
- Lamb, M. E. (2013). The changing faces of fatherhood and father-child relationships: From fatherhood as status to father as dad. In M. A. Fine & F. D. Fincham (Eds.), *Handbook of family theories: A content-based approach* (pp. 87-102). NY: Routledge.
- Lamb, M. E., & Tamis-LeMonda, C. S. (2004). Fathers and mothers at play with their 2- and 3-year-olds: Contributions to language and

- cognitive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75(6), 1806-1820.
 - League, S. E., & Ford, L. (1996). *Fathers' involvement in their children's special education program*. Presentation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 Psychologists, Atlanta, GA.
 - Levant, R. F. (1992). Toward the reconstruction of masculinity.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5(3-4), 379-402.
 - Lupton, D., & Barclay, L. (1997). *Constructing fatherhood: Discourses and experiences*. CA: Sage Publications.
 - Marsiglio, W., Amato, P., Day, R., & Lamb, M. (2000). Scholarship on fatherhood in the 1990s and beyond.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2(4), 1173-1191.
 - Minton, C., & Pasley, K. (1996). Fathers' parenting role identity and father involvement: A comparison of nondivorced and divorced, nonresident fathers. *Journal of Family Issues*, 17(1), 26-45.
 - Palkovitz, R. (1984). Parental attitudes and fathers' interactions with their 5-month-old infants. *Developmental Psychology*, 20(6), 1054-1060.
 - Pleck, J. H. (1997). Paternal involvement: Levels, sources, and consequences. In M. E. Lamb (Ed.),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3rd ed., pp. 66-103). NY: Wiley.
 - Raley, S., Bianchi, S. M., & Wang, W. (2012). When do fathers care? Mothers' economic contribution and fathers' involvement in child car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17(5), 1422-1459.
 - Reynolds, A. J., Ou, S. R., & Topitzes, J. W. (2004). Paths of effects of early childhood intervention on educational attainment and delinquency: A confirmatory analysis of the Chicago Child Parent Centers. *Child development*, 75(5), 1299-1328.
 - Sarkadi, A., Kristiansson, R., Oberklaid, F., & Bremberg, S. (2008). Fathers' involvement and children's developmental outcomes: A systematic review of longitudinal studies. *Acta Paediatrica*, 97(2), 153-158.
 - Taskin, N., & Erkan, S. (2009). The influence of father education programs on the levels of father involvement with children: An experimental study. *Hacettepe Üniversitesi Eğitim Fakültesi Dergisi*, 37, 136-148.
- 1 차원고접수 : 2017. 04. 08.
수정원고접수 : 2017. 05. 10.
최종게재결정 : 2017. 05. 22.

Research Trends in Korean Fathers - Focusing on Fathers with Young Children -

Kim, Kyoung-Eun

Dept. of Child Welfare, Namseoul University

Kim, Youn-A

NeuHarang Child Care Center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search trends of Korean fathers with young children. In the present study a total of 249 papers published in the KCI journals from 1990 to 2016 were analyzed. Research journals concerning Korean fathers with young children were reviewed in terms of related variables (research themes) and research methods (research subject, research design, data collection, and scale). The number of researches per decade are 20 (1990-1999), 65 (2000-2009), and 164 (2010-2016). The results showed that the most constantly visited theme in researches on Korean fathers 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athers' characteristics and their children's development. The main subjects in Korean fathers research are preschoolers. Questionnaire methodology and cross-sectional research design is the most frequently used methodology in research on fathers while valid and reliable scales for further research should be developed. Also, researchers showed relatively more interest in diverse topics during 2010-2016. However, research on fathers with infants should be expanded.

Keywords: father, young children, research theme, research methods, research trend